



환경보호와 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 시 북구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다. <광주일보 DB>

광주 '일회용품 줄이기' 열풍

중이점·플라스틱 빨대 없애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자발적 협약 참가 크게 늘어 일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발족

광주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붐이 일고 있다. 곳곳에서 '일회용품 안쓰기' 캠페인과 협약식이 진행되고 광주시민들로 구성된 '일회용품 안쓰기 도전단'은 발족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지역 대학생들도 테이크 아웃용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없애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일회용품 안쓰는 날" (매년 7월3일)을 맞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자발적협약 강화 내용과 일회용품 사용의 환경문제를 홍보하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 등 자발적 협약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시활동'을

할 예정이며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과 '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함께한다.

광양과 전북 전주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을 연 도전단은 오는 8월까지 두 달간 일회용컵과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20대 청년부터 60대 주부까지 모두 30명이 도전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에게는 텀블러와 에코백이 지급됐다.

조선대학교 대학생들로 구성된 '시민맛' (시민 참여를 통해 진정한 시민의 맛을 알자) 프로젝트 팀은 지난 5월부터 대학교 주변 일회용 제품 없애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인근 옛 현철의 집 앞 버스정류장에 음료와 음료컵을 분리해 버릴 수 있는 액체 분리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했으며 대학 주변 상가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유명 브랜드 제과점에서도 앞으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와 '파라바게트', '뚜레쥬

르',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파라바게뜨는 올 말까지 플라스틱 빨대사용량(연간 26t)을 30% 감축(무게기준)하고,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종이 빨대와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 등을 개발하고 있다. 뚜레쥬도 올해 하반기부터 유색이던 일회용 컵의 디자인을 변경할 계획이며, 비닐 쇼핑백 없는 날을 운영해 장바구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3일에는 전국 파라바게뜨 직영점에서 비닐쇼핑백 대신 종이 쇼핑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1주일 사용량은 전국 평균 3.36개로, 광주는 이보다 높은 3.88개로 조사됐다. 1회용 그릇·접시는 1주일 0.97개(전국 0.81개), 1회용 비닐봉투는 1주일 3.25개(전국 2.90개), 1회용 목욕용품(면도기·칫솔 등)은 1주일 1.52개(전국 0.86)개를 쓰고 있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2	달뜨기	23:08
해질	19:51	달짐	09:38

비피해 조심
태풍 영향으로 많은 비와 함께 돌풍 부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리고한때비	23/31	보성	흐리고한때비	23/27
목포	흐림	24/30	순천	흐리고한때비	24/28
여수	흐리고한때비	24/25	영광	흐림	23/31
나주	흐림	24/31	진도	흐림	23/29
완도	흐림	24/29	전주	비	23/31
구례	흐리고비	22/28	군산	흐림	23/31
강진	흐림	23/29	남원	비	23/28
해남	흐림	23/29	흑산도	흐림	21/27
장성	흐리고한때비	23/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동~동	2.0~3.0	북동~동	1.5~2.5
남부	남바다	북동~동	3.0~5.0	북~북동	2.0~4.0
남해	남바다(동)	동~남동	3.0~5.0	남동~남	2.0~4.0
서부	남바다(서)	북동~동	3.0~5.0	서~북서	2.0~4.0

◇생활지수

- 주의: 식중독
- 매우높음: 자외선
- 중음: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34	05:17
	22:29	17:17
여수	06:00	11:55
	17:48	--:--

◇주간 날씨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	☁	☁	☁	☁	☁	☁
23/32	23/28	23/28	22/29	23/29	25/29	22/30

교육청 6월 모평 실재점 결과 분석

지난달 7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실재점결과, 전남대 영어교육과·국어교육과·경영학부 지원가능 점수는 표준점수 600점 만점(영어제외) 기준, 382~387점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의예과 지원가능 점수는 413점으로 파악됐다.

조선대의 경우 영어교육·경찰행정학과 지원가능 점수는 354~360점,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각각 410점과 405점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2일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 주관으로 치러진 '2019학년도 6월 모의수능' 실재점결과를 분석,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전남대 인문계열 학과 지원 가능 점수

전남대 영어교육과·경영학부 382~387점 서울대 문과 407점·이과 400점 지원 가능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영어 제외), 366~387점으로 조사됐다. 자연계열은 351~413점까지 학과별로 지원가능 점수가 다르다. 조선대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314~360점, 자연계열은 315~410점 분포다. 표준점수를 활용하지 않는 광주교육대의 경우, 영어를 제외한 국어·수학·탐구영역 평균 백분위 91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는 국어·수학·탐구영역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으로 문과는 407점

이상, 이과는 400점 이상 돼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문과는 402점 내외, 이과는 392점 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국영수 모두 만점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지난해 수능에 비해 이번 모의평가가 다소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어 만점비율은 0.25%, 수학(가형)의 만점 비율은 0.03%, 수학(나형)의 만점 비율은 0.06%로 작년 수능에 비해 모

두 줄었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에 해당하는 90점 이상의 학생 수는 2만1762명(4.19%)으로, 지난해 수능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 5만2983명(10.03%)과 견주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4일 오후 2시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 및 수시지원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서부경찰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프로젝트 시행

광주 서부경찰청은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온·오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올해 5월 사무·조사 공간을 분리하고 독립된 조사실에 잠미 모양의 조명을 설치했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다른 의사 표현 없이 조명을 켜도록 해 '젠더감수성 온(ON)·2차 피해 오프(OFF)'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문을 제공해 피해자 인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광주여성전화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강사를 초대에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한 토론·참여식 경찰관 교육을 매달 시행할 방침이다.

역할 연기 등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 과정을 되짚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국군기무사 TF팀 꾸려 '세월호' 사찰했다

국방부 댓글 조사단 확인 보수단체 집회 정보도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사찰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댓글조사TF)는 2일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댓글조사TF는 '예비역 사이버전사 운용계획' 등 기무사의 안보단체 동원 여론 조작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

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 28일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5월 13일 기무사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했다. 같은해 10월 12일까지 이 TF를 운영했다.

기무사의 TF는 육군소장급 참모장을 단

장으로 사령부와 현장 기무부대원 60명으로 짜여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 세력 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이들은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인양 등 군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을 비롯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의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조사TF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직전 통산 근무기간 1년 넘으면 전보직장 자격 3년 유지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에 여러 개 사업장 근무 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

다.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일했다라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었다.

개정 규정은 지난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